

한주간 쉽게 보는

국내 미래산업 연구 및 정책동향

Domestic Future Industry Research and Policy Trends

No. 102



Contents



※ 2025.10.30(목) 기준(대상 기간 : 2025.10.23.~2025.10.29.)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1

■ 탄소중립 분야 1	
– 발전 5사, LNG 투자 집중으로 탄소중립 목표 역행(2025.10.23)	1
– 정부, 기후테크 산업 육성 위한 범부처 TF 출범(2025.10.23)	1
– 정부, AI·탄소중립 시대 소부장 '2030 로드맵' 발표(2025.10.23)	2
– 기후부, '2035 제주 탄소중립 협의체' 발족으로 공약 이행 가속(2025.10.24)	2
– 부여군의회, '탄소중립 농산물 인증제' 주민공청회 개최(2025.10.23)	2
– 부천시, 수송부문 탄소중립 선도 위한 업무협약 체결(2025.10.23)	3
– 수원특례시, 제1회 탄소중립 축제 '오늘무해! 페스티벌' 개최(2025.10.23)	3
– 광양시, 저탄소 농산물 인증 대폭 확대로 탄소중립 농업 선도(2025.10.23)	4
– 충청남도, '수소 교통 전환' 가속화로 탄소중립 선도(2025.10.23)	4
– 대구 수성구 진발골, '목재친화도시'로 조성(2025.10.23)	4
■ AI 분야 5	
– 한국-독일, '제조AI 데이터 표준화' 협력 논의(2025.10.23)	5
– 인천시, AI·로봇으로 노후계획도시를 미래도시로 전환(2025.10.23)	5
– 강기정 시장, 국회 방문해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 설립' 공약 이행 촉구(2025.10.23) ·	6
–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전, 광주 '울고' 전남 '웃고'(2025.10.23)	6
– AI교과서, '교육자료' 격하 후 2학기 신청 학교 반토막(2025.10.23)	7

- 보은군, 겨울철 구제역·AI·ASF 총력 방역체제 돌입(2025.10.23) 7
- 서울시, AI 기반 '전세사기 위험분석보고서' 서비스 출시(2025.10.23) 8
- 문인 복구청장, "AI컴퓨팅센터 전남 선정, 광주·전남 시도 통합 출발점으로"(2025.10.23) 8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9

■ 탄소중립 분야 9

-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더 과감한 탄소중립" 주문(2025.10.23) 9
- 의왕도시공사, 사회적 약자 대상 '탄소중립 힐링문화체험' 운영(2025.10.23) 9
- 부산도시공사-동아대, 기후·탄소중립 미래인재 양성 협약(2025.10.23) 10
-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생산기술넷제로연구조합, 제조기업 탄소중립 협약(2025.10.23) 10

■ AI 분야 11

- LH, AI 기반 스마트 계측 시스템으로 옹벽 안전관리 강화(2025.10.23) 11
- 수자원공사, 세계은행 본부서 '물 분야 디지털·AI 전환' 세션 개최(2025.10.23) 11
- 세무사회, 국세청 방문해 '국세행정 AI 대전환' 및 '불법 세무대리' 대응 논의
(2025.10.23) 12
- 김동철 한전 사장, "국가 전력망 적기 건설 및 AI 경영혁신" 5대 전략 추진(2025.10.23) 12
- 경기도서관 개관, '기후·환경' 및 'AI 특화' 창의 공간 주목(2025.10.23) 13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13

■ 탄소중립 분야 13

- 미쉐린, 복합소재 분야 확장으로 수익 다각화 및 탄소중립 추진(2025.10.24) 13
- 대진대 연천군 탄소중립지원센터, 기후부 '탄소중립 우수사례' 선정(2025.10.24) 14
- [열린마당] 탄소중립, 기후위기 속 선택 아닌 생존의 문제(2025.10.23) 14

■ AI 분야 15

- 쿠팡, 'FIX 2025'서 AI·로보틱스 기반 첨단 물류 혁신 공개(2025.10.23) 15
- AI 시대 'K-반도체', 올해 수출 역대 최대 1650억 달러 전망(2025.10.23) 15
- SK그룹, APEC CEO 서밋 '퓨처 테크 포럼: AI'서 한국 AI 역량 소개(2025.10.23) ... 16
- 일손 부족 농어촌, '로봇 농부'와 'AI 어부'가 대체(2025.10.23) 16
- 중견기업 60%, "AI 도입 필요" 느끼나 높은 비용이 걸림돌(2025.10.23) 17
- 패션 AI 스타트업 '에스플리즈AI', 스타일 분석으로 맞춤 쇼핑 제공(2025.10.23) 17
- 대상그룹, 자체 AI 플랫폼 '대상 AI' 전사 도입으로 AI 전환 가속(2025.10.23) 17
- LGU+ '익시젠', AI 학회 'EMNLP 2025'서 산업 특화 AI 기술 입증(2025.10.23) 18
- 나노엔텍, AAI헬스케어 인수로 '커넥티드 헬스케어' 기업 도약(2025.10.23) 18
- 삼성전자·SK하이닉스, 'SEDEX 2025'서 HBM4 실물 공개하며 AI 메모리 주도권 격돌
(2025.10.23) 19
- TYM, '2025 국제농업박람회' 참가해 AI 자율주행 농기계 선보여(2025.10.23) 19
- 인천대, 국내 대학 최초 AI 급식관리 시스템 도입(2025.10.23) 20
- 경북대, 'FIX 2025'서 로봇·AI·모빌리티 등 미래 혁신 기술 선보여(2025.10.23) 20
- KAIST GCC, 'USA Business Scale-Up Program'으로 로봇 스타트업 실리콘밸리 진출 지원(2025.10.23) 20
- 동의과학대, 물리치료사 대상 'AI/DX 기반 어깨 치료' 재직자 교육 실시(2025.10.23) 21
- AI 기술, 핵융합 발전 난제 '플라스마' 통제 지원(2025.10.23) 21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 발전 5사, LNG 투자 집중으로 탄소중립 목표 역행(2025.10.23) - 박정 의원이 발전 5사의 LNG 발전 설비에 대한 12조 원 초과 투자는 국가 탄소중립 목표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함. 2020년 이후 신규 설비 17건 모두 LNG 발전소였으며, 재생에너지 신규 투자는 전무한 실정임 - 발전 5사의 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은 평균 5.6%에 불과하며, 특히 중부발전과 동서발전은 3% 미만임. 박 의원은 LNG 발전 확대가 실질적 에너지 전환이 아닌 '퇴행적 투자'라고 지적함 - LNG 발전소 대부분이 2030년 전후 준공 예정으로, 2050년 탄소중립 시점까지 장기 가동될 구조임을 비판함. 박 의원은 재생에너지 설비 비중 목표 설정과 중장기 투자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함
중앙부처	□ 정부, 기후테크 산업 육성 위한 범부처 TF 출범(2025.10.23)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후테크 산업 육성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범부처 전담반(TF)을 공식 출범함. TF에는 기후부, 과기부 등 10개 부처가 참여해 관련 정책과 기술개발 현황을 점검함 - 기후테크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혁신 기술로, 5개 분야로 구분됨. 참석자들은 사업 진행 현황과 제도 개선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과제를 논의할 계획임 - 기후부는 전문가 논의를 거쳐 5대 분야별 핵심 기술 선정 및 이행안을 마련하고, '기후테크 산업 육성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임. 범부처 역량 결집을 통해 탄소 감축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견인할 방침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정부, AI·탄소중립 시대 소부장 '2030 로드맵' 발표(2025.10.23) - 정부가 AI와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에 맞춰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차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함. 혁신, 시장, 생태계 역량을 갖춘 글로벌 선도 산업으로의 도약이 목표임 - '혁신 역량' 부문은 4대 도전기술 집중 개발, 특화 인프라 확충, AI 기반 5대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 추진 등을 포함함. '슈퍼 울 프로젝트'도 본격화될 예정임 - '시장 역량'은 글로벌 진출과 5대 핵심 분야 공공 선도 투자를, '생태계 역량'은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 전국 확산 및 특화단지 10곳 추가 지정을 골자로 함. 2026년 소부장 특별회계 예산도 확대함
	□ 기후부, '2035 제주 탄소중립 협의체' 발족으로 공약 이행 가속(2025.10.24)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력거래소 제주본부에서 '2035 제주 탄소중립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함. 이는 '2035 제주 탄소중립 섬 공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목적임 - 제주도는 재생에너지 공급 약 20%, 전기차 보급률 전국 1위 성과를 이룸. 하지만 실질적 탄소중립을 위해 유연성 자원 확충, 전력시장 제도 개편 등이 필요한 상황임 - 협의체는 탄소중립 이행안과 부문별 지원방안을 논의 및 조율할 예정임.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제주에서의 성공적 실험을 국가 차원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힘
지자체	□ 부여군의의회, '탄소중립 농산물 인증제' 주민공청회 개최(2025.10.23) - 부여군의의회가 '탄소중립 농산물 인증제 도입 타당성 검토'를 주제로 주민공청회를 개최함. 이번 공청회는 정책연구회가 주최하고 아시아농업농촌연구원이 주관하여 진행됨 - 정책연구회는 인증제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군민과 공유하고 현장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함. 공청회는 주제 발표, 패널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김기일 대표의원은 인증제가 농가 참여 촉진과 부여군 농산물의 가치소비 중심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함. 군의회는 공청회 의견을 검토해 부여형 지속가능 농업 모델을 만들고 제도적 기반을 다질 계획임
	□ 부천시, 수송부문 탄소중립 선도 위한 업무협약 체결(2025.10.23) - 부천시가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부천도시공사와 수송부문 탄소중립 상호 협력 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함. 이는 국토교통부 R&D 사업의 실증 거점도시로 부천시가 유일하게 선정되며 추진됨 - 협약에 따라 부천시는 행정지원과 실증 공간 제공, ITS Korea는 리빙랩 구축과 서비스 운영, 부천도시공사는 데이터 연계 등을 지원함. 3개 기관은 4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인프라 확대를 계획함 - 조용익 시장은 데이터 기반 탄소중립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이라 밝힘. 부천시는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수송부문 탄소중립 국가 표준모델 도시로 자리매김할 방침임
	□ 수원특례시, 제1회 탄소중립 축제 '오늘무해! 페스티벌' 개최(2025.10.23) - 수원특례시가 11월 2일 고색역 상부 일원에서 제1회 탄소중립 한마당 축제 '오늘무해! 페스티벌'을 개최함. '지구로운 일상, 무해로운 삶'을 주제로 공연, 체험, 캠크닉이 어우러진 시민참여형 행사임 - 이번 축제는 '탄소중립 실천주간'의 시작을 알리며, 시민들이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체감하도록 구성됨. 기념식에는 기념식수, 유공자 표창, 미디어 퍼포먼스 및 이석훈의 본공연이 진행됨 - 행사장에는 버스킹 공연, 환경 영화 상영회, 어린이 직업체험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됨.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이 즐겁게 탄소중립 가치를 체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광양시, 저탄소 농산물 인증 대폭 확대로 탄소중립 농업 선도(2025.10.23) - 광양시가 2025년 상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심사에서 271농가(117ha)가 신규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힘. 이는 전년 대비 135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탄소중립 농업을 선도하고 있음을 증명함 -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친환경 또는 GAP 인증 농산물 중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농산물에 부여하는 국가 인증임. 광양시는 상반기부터 교육과 컨설팅으로 기반을 다져옴 - 그 결과 친환경·GAP 벼 재배단지 전 면적과 애호박, 양상추 등이 인증을 획득함. 이강기 과장은 농업인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며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 충청남도, '수소 교통 전환' 가속화로 탄소중립 선도(2025.10.23) - 충청남도가 대규모 청정 수소 교통 혁신에 속도를 내며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한 맞춤형 설명회'를 개최함. 이는 '2030 청정 수소로 이음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임 - 도는 2030년까지 수소차 1만 8000대 보급 및 수소충전소 67기 확대를 추진 중임. 설명회에서는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상향, 충전 기반시설 확대, 구축 지원 방안 등이 안내됨 - 운수사에는 재정 인센티브와 차고지 내 충전소 설치 지원 등 실질적 이익을 설명함. 도는 전국 최초로 수송 부문 수소 교통 체계 선도 모델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함
	□ 대구 수성구 진밭골, '목재친화도시'로 조성(2025.10.23) - 대구 수성구 진밭골이 탄소중립 소재인 목재를 활용한 '목재친화도시'로 조성될 예정임. 수성구청은 '진밭골 목재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공모를 진행 중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총사업비 5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목재커뮤니티센터, 목재친화거리, 꿈꾸는 숲 조성을 골자로 함. 특히 목재커뮤니티센터는 국제지명 설계공모가 진행 중이며 세계적 건축가 '쿠마 켄고'가 참여함 - 2027년 말 완공 목표로, 조성 완료 시 목재를 활용한 교육, 학습, 문화체험 제공이 가능해짐. 구청 관계자는 기존 인프라와 연계해 탄소 저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공간으로 만들 것이라 말함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한국-독일, '제조AI 데이터 표준화' 협력 논의(2025.10.23)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제2회 한-독 산업데이터 협력 포럼'을 개최함. 한국형 산업데이터 스페이스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함 - 산업 데이터 스페이스는 동일 산업 내 기업들이 제조 공정 및 공급망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는 개방형 데이터 생태계임. 독일은 자동차 업종의 '카테나-X'를 운용하는 등 이 분야 선도국임 - KIAT는 내년 '한국형 산업데이터 스페이스 표준모델 구축 사업'을 앞두고 독일 표준 전문기관 SCI 4.0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함. 민병주 원장은 제조업의 AI 전환(AX) 기반인 데이터 확보를 위해 독일과 협력할 것을 밝힘
지자체	☐ 인천시, AI·로봇으로 노후계획도시를 미래도시로 전환(2025.10.23) - 인천시와 LG CNS가 '노후계획도시 시민체감형 첨단미래도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함. 이는 노후계획도시를 AI와 로봇 기반 미래도시로 전환하는 프로젝트의 시작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협약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AX(인공지능), RX(로봇), VX(가상) 서비스를 도시정비사업에 접목할 공공-민간 협력체계를 마련함. 인천 5개 지구가 노후계획도시정비 대상 지역임 - 시는 LG CNS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AI 완전가로, 로봇 생활지원 등 개방형 AI 도시 기술을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임. 2026년 3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임
	□ 강기정 시장, 국회 방문해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 설립' 공약 이행 촉구(2025.10.23) - 강기정 광주시장이 국회를 방문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 설립 이행 촉구 성명서'를 전달함. 이는 '광주미래산업 비상회의' 결의에 따른 것임 - 성명서는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 설립이 대통령 1호 공약임을 강조하며, 기업이 경제성만 앞세워 입장을 바꾸는 것은 국가 전략 훼손이라고 지적함. 광주시는 과학적 조건을 제시했으나 기업의 입장 변경을 비판함 - 참석자들은 공약 이행과 정부의 책임 있는 국가 AI 전략 재정립을 촉구함. 광주가 인프라, 기업, 인재가 집적된 최적지임을 강조하며 범시민적 대응을 이어가기로 함
	□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전, 광주 '울고' 전남 '웃고'(2025.10.23) - 2조 5천억 원 규모의 국가AI컴퓨팅센터가 전남에 들어설 가능성이 커짐. 과기부 사업 신청 접수 결과, 삼성SDS 컨소시엄이 전남을 후보지로 최종 선택함 - 후보지는 전남 해남 기업도시 '솔라시도'로 알려졌으며, 이곳에는 오픈AI-SK 데이터센터도 들어설 예정임. 전남은 민간 데이터센터 유치에 이어 국가 주도 센터 후보지로 선정되며 고무된 상태임 - 반면, 유치를 자신했던 광주시는 충격에 휩싸임. 강기정 시장은 국회를 방문해 성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명서를 전달했으나, 일부 시민들은 광주시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함. 센터 입지는 12월 최종 선정될 예정임
	□ AI교과서, '교육자료' 격하 후 2학기 신청 학교 반토막(2025.10.23) -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되면서, 경남 지역의 2학기 신청 학교 수가 1학기 97개교에서 46개교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함 - 도교육청은 시범학교 운영으로 현장 혼란 최소화를 시도했으나, 8월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2학기 도입에 혼선을 빚음. 긴급 예산 투입에도 발행사 사정, 행정문제, 낮은 활용도 등으로 절반의 학교가 사용 중단함 - 전국적으로도 2학기 AIDT 신청 학교는 1학기(4146개교) 대비 절반 수준인 2095개교로 집계됨. AIDT는 맞춤형 학습 지원 목표였으나 콘텐츠 품질, 효율성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됨
	□ 보은군, 겨울철 구제역·AI·ASF 총력 방역체제 돌입(2025.10.23) - 보은군이 겨울철을 앞두고 구제역(FMD),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등 악성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전 행정력을 투입함. 내년 2월 말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함 - 겨울철은 바이러스 생존 기간이 길어 감염 위험이 높음. 최근 파주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되고 ASF 재발 위험이 커지는 등 방역 긴장감이 고조됨. 군은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상황실'을 24시간 비상 운영함 - 군은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 완료 및 항체양성률 조사를 실시함. AI 예방을 위해 가금농장 정밀검사와 행정명령을 공표하고, ASF 차단을 위해 양돈농장 8대 방역 시설 점검을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임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서울시, AI 기반 '전세사기 위험분석보고서' 서비스 출시(2025.10.23) - 서울시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전세사기 위험분석보고서' 서비스를 24일부터 개시함. 주소 입력 시 AI가 24종의 세부 지표로 계약 안전도를 판단함 - 시가 1500명의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 데이터를 AI로 분석한 결과, 일반 임대인과 신용도, 보유 주택 수, 세금 체납률 등 11가지 위험 신호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임. 사기 임대인의 신용점수가 현저히 낮음 - 보고서는 집주인 신용정보(본인 동의 시) 11개 항목과 주택 정보 13개 항목을 제공함. 서울주거포털 등에서 쿠폰 발급 시 서울 지역 임대차계약 예정자 1000명에게 무료로 이용 제공됨
	□ 문인 복구청장, "AI컴퓨팅센터 전남 선정, 광주·전남 시도 통합 출발점으로" (2025.10.23) - 문인 광주 복구청장이 국가 AI컴퓨팅센터 공모에서 전남이 후보지로 선정된 것에 대해 기자회견을 개최함. 첨단3지구 유치가 어렵게 됐지만, 이를 지역 소외나 실패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힘 - 문 청장은 이번 결과를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 및 광주전남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의 출발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함. 제로섬 경쟁이 아닌 플러스섬 협력을 해야 한다고 말함 - 구체적 해법으로 △중앙정부 감정적 대응 자제 △광주(AI R&D 허브)와 전남(인프라)의 분업 협력 △광주국가데이터센터 중심 기업 유치 △실질적 시도통합 추진 등을 제시함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더 과감한 탄소중립" 주문(2025.10.23) -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출을 앞둔 가운데,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 더 과감한 탄소중립 행동과 속도감 있는 이행을 주문함 -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2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 협약임. 한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재명정부는 2035년 NDC 상향을 검토 중임 - 김 원장은 올해가 풍력, 태양광 발전량이 석탄을 앞지른 전환점이라며, 단순 선언이 아닌 구체적 성과 평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함. 또한 정책 의지를 통한 제도 혁신과 국제 통합을 역설함
지방기관	□ 의왕도시공사, 사회적 약자 대상 '탄소중립 힐링문화체험' 운영(2025.10.23) - 의왕도시공사가 바라산자연휴양림에서 지역 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힐링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음. 이는 자연 속 쉼과 체험을 결합한 탄소중립 실천형 활동임 - 참가자들은 숲길 명상, 목공예, 천연 염색 등 다채로운 체험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느낌. 공사는 이번 행사가 사회적 약자의 여가 복지 향상과 탄소중립 가치 확산 목표를 동시에 실현했다고 밝힘 - 최재경 처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지속가능한 삶에 다가가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향후에도 포용적 복지와 친환경 도시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방기관	□ 부산도시공사-동아대, 기후·탄소중립 미래인재 양성 협약(2025.10.23) - 부산도시공사와 동아대학교 RISE 사업추진단이 '기후·탄소중립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관·학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함. 이는 기후변화 대응과 지역특화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함 -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 및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한 정책 자문과 정보 교류를 진행함. 또한 공사 사업현장 학습 기회 제공, 조경학과 캡스톤 디자인 공동 수행 등을 이행할 예정임 - 이상용 본부장은 이번 협약이 탄소중립과 미래지향적 도시 구축 목표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 밝힘. 공사는 지역 인재 양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덧붙임
	□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생산기술넷제로연구조합, 제조기업 탄소중립 협약(2025.10.23) -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과 한국생산기술넷제로연구조합이 '중소·중견 제조업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이는 김해시 제조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기반을 다지기 위함임 - 양 기관은 제조공정 탄소배출 DB 구축, 기술 보급 확산, 넷제로 정책 발굴 및 지원,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활용 등에 협력하기로 함 - 김종욱 원장은 과기부 인가 전문기관과의 협력으로 지역 제조기업을 위한 실질적 성과를 기대함. 한국생산기술넷제로연구조합은 산업체의 2050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유일한 연구조합임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LH, AI 기반 스마트 건축 시스템으로 옹벽 안전관리 강화(2025.10.23)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 옹벽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건축관리 시스템을 도입함 - 이 시스템은 사물인터넷(IoT) 센서와 AI 분석기술을 융합해 옹벽의 구조적 변화를 실시간 감지함. AI 분석엔진이 미세한 변화와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관리자에게 위험 징후를 실시간으로 알리는 구조임 - LH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위험 증가에 대응해 옹벽 관리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임. 최근 시범 구축을 마쳤으며, 향후 시스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LH 재난관리 플랫폼과 연계한 통합 원격 감시체계도 운영함
	□ 수자원공사, 세계은행 본부서 '물 분야 디지털·AI 전환' 세션 개최(2025.10.23) -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미국 워싱턴 세계은행 본부에서 물 분야 디지털 및 AI 전환 가속화를 위한 특별 세션을 개최함 - 이번 세션은 KGGTF(한국녹색성장신탁기금)가 주최한 'KGID 2025'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공사와 세계은행 Water GP가 공동으로 진행함 - 공사는 AI 정수장 중심의 물관리 데이터와 디지털 솔루션을 소개함. 내년 상반기 한국에서 '디지털·AI 기반 물관리 교류 프로그램'을 세계은행과 공동 개최하기로 합의하며 협력을 확대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세무사회, 국세청 방문해 '국세행정 AI 대전환' 및 '불법 세무대리' 대응 논의(2025.10.23) -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21일 국세청을 방문해 임광현 국세청장을 예방함. 국세행정 AI 대전환 추진 방안과 불법 세무대리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함 - 임광현 청장은 세정 혁신 성공을 위해 현장 세무사와 세무사회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구재이 회장은 국세행정 AI 대전환과 강력한 체납 징수 정책에 세무사들이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함 - 불법 세무대리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짐. 구 회장은 일부 세무 플랫폼의 문제를 지적하며 국세청, 세무사회, 회계사회의 3자 협약을 제안함. 임 청장은 세무 플랫폼 관리·감독 규정 신설을 기재부와 협의 중임
	□ 김동철 한전 사장, "국가 전력망 적기 건설 및 AI 경영혁신" 5대 전략 추진(2025.10.23) -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5대 분야 12대 전략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경영혁신과 국가기간 전력망의 적기 건설을 중심으로 함 - 김 사장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해 첨단산업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보장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품질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함 - 또한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계통 접속에 주력하고 해상풍력 직접 보급에도 앞장설 것을 밝힘. AI를 활용한 대대적 경영혁신과 고강도 자구노력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경영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갈 것이라 말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방기관	□ 경기도서관 개관, '기후·환경' 및 'AI 특화' 창의 공간 주목(2025.10.23) - 25일 개관하는 경기도서관은 전국 첫 기후·환경도서관을 표방함. 수원 광고 경기 융합타운에 국내 공공도서관 최대 규모로 문을 열며, 도내 2000여 개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는 '도서관의 도서관' 역할을 함 - 5층까지 이어진 나선형 중정에 천연 이끼 '스칸디아모스'를 배치해 숲속 분위기를 연출함. 4층 '기후환경공방'에서는 업사이클 체험이, 2층 '포용의 공간'에는 22개 언어의 도서관이 비치됨 - 지하 1층 '창의 공간'은 챗GPT, 제미니 등 8종의 유료 생성형 AI 도구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함. 5층 '성장의 공간'은 청년 및 창작인들의 작업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임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미쉐린, 복합소재 분야 확장으로 수익 다각화 및 탄소중립 추진(2025.10.24) - 미쉐린이 고분자 복합소재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 모빌리티, 항공우주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사업을 확장함. 이는 수익 구조 다각화와 탄소중립 달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함임 - 136년간의 타이어 생산 경험으로 축적한 복합소재 기술을 컨베이어 벨트, 소방용 호스 등에 적용함. 또한 NASA 달 탐사 프로젝트에 참여해 '에어리스 타이어'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개발하는 등 항공우주 분야로도 진출함 - 미쉐린의 복합소재 전략은 2050년까지 모든 타이어 소재를 재생 가능 자원으로 전환하는 탄소중립 목표와 연결됨.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핵심 성장 거점으로 보고 관련 인프라에서 역할을 확대할 계획임
대학교	□ 대진대 연천군 탄소중립지원센터, 기후부 '탄소중립 우수사례' 선정(2025.10.24) - 대진대학교가 위탁 운영하는 연천군 탄소중립지원센터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2025 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 우수사례'로 선정됨. 전국 최초 군 단위 주민참여형 모델 구축 성과를 인정받음 - 센터는 'DMZ 접경지역 기후행동 거버넌스 구축 및 실천 사업'을 통해 주민과 군 장병이 참여하는 생활밀착형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운영함. 몽골과의 국제 협약으로 기초지자체 탄소외교 모델도 제시함 - 전미애 센터장은 주민 중심 거버넌스 성과가 공식 인정받은 것이라 평함. 장석환 총장은 대학이 지역 기후행동의 중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
해외	- (해당 없음)
기타	□ [열린마당] 탄소중립, 기후위기 속 선택 아닌 생존의 문제(2025.10.23) - 최근 쌀값 폭등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기후위기가 지목됨. 폭우와 폭염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가 가격 급등으로 이어져, 기후변화가 현실적 경제 위협이 되고 있음을 반증함 - 탄소중립은 이제 생존의 문제이며, 니컬러스 스턴은 현재의 투자가 미래의 더 큰 손실을 막는다고 경고함. 마이크로소프트는 '탄소부담금' 제도를 통해 비용 절감과 혁신을 동시에 달성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기타	- 이는 탄소중립이 부담이 아닌 기회임을 증명하는 사례임. 우리 사회도 탄소 배출에 책임을 부여하고 재원을 기후 대응에 투입해야 하며, 쌀값 폭등은 탄소중립의 시급성을 보여주는 신호임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쿠팡, 'FIX 2025'서 AI·로보틱스 기반 첨단 물류 혁신 공개(2025.10.23) - 쿠팡이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2025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5)'에 참가해 '쿠팡의 AI·로보틱스가 만드는 유통·물류 혁신'을 주제로 전시 부스를 운영함 - 쿠팡은 로켓배송의 핵심인 자동화 물류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공개함. 무인운반로봇(AGV), 자율이동로봇(ACR), 소팅 봇, 무인지게차 등 실제 물류센터 자동화 장비를 실물 전시함 - 이 기술들은 물류 효율 증대 및 직원의 업무 강도 완화에 기여함. 쿠팡은 2027년 '전국민 100% 무료 로켓배송'을 목표로 2026년까지 3조 원 이상을 추가 투입해 지역 물류망을 강화할 계획임
	□ AI 시대 'K-반도체', 올해 수출 역대 최대 1650억 달러 전망(2025.10.23) -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올해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치인 1650억 달러 이상인 것으로 전망됨. 산업통상부는 '제18회 반도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함 -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올해 반도체 수출이 2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함. AI 시대를 맞아 메모리 1위 수성과 시스템 반도체 격차 축소를 위한 흔들림 없는 육성을 강조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송재혁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은 AI 확산으로 K-반도체 경쟁력이 주목받고 있다며, 지금이 투자·인재·인프라의 골든타임임을 강조함. 이날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83명에 대한 포상도 이루어짐
	□ SK그룹, APEC CEO 서밋 '퓨처 테크 포럼: AI'서 한국 AI 역량 소개(2025.10.23) - SK그룹이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CEO 서밋'의 부대행사 '퓨처 테크 포럼: AI'를 통해 한국의 인공지능(AI) 역량과 청사진을 전 세계에 알릴 예정임 - APEC CEO 서밋 의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환영사에서 AI 생태계 확장 경험과 국가 AI 생태계 모델 방향을 제시함. AWS, 네이버, 오픈AI, 메타 등 국내외 빅테크 수장들이 참여함 - 'K테크 쇼케이스'에서는 SK그룹의 'AI 데이터센터 솔루션'이 소개됨. 최 회장은 오픈AI CEO와 협력하는 등 AI 외교에 앞장서며 그룹의 'AI 중심 리밸런싱'을 가속화하고 있음
	□ 일손 부족 농어촌, '로봇 농부'와 'AI 어부'가 대체(2025.10.23) - 저출산 위기로 인한 노동력 공백이 심화되자 현장 노동을 대체할 기술 스타트업이 주목받음. 특히 인력난이 심각한 1차 산업과 현장 노동 분야를 중심으로 '생산성 대체형' 테크 기업 투자가 활발함 - '타이드풀'은 AI 기반 스마트 양식 솔루션 '피시 스콥'을 개발함. AI가 어류의 생장 모니터링, 사료 자동 공급, 출하 시점 예측 등을 수행하며 데이터 기반으로 양식업을 운영함 - AI 농업 로봇 스타트업 '메타파머스'는 비전 AI와 로봇 손 '그리퍼'로 작물을 인식하고 수확하는 로봇 농부를 개발함. 이외에도 도축 자동화 로봇, 위험 지역 정찰 로봇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중견기업 60%, "AI 도입 필요" 느끼나 높은 비용이 걸림돌(2025.10.23) - 중견기업 10곳 중 6곳(59.1%)이 인공지능(AI) 도입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됨 -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 18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현재 AI를 도입했거나 도입 중인 기업은 18.1%, 도입 예정 기업은 26.6%였으며, 도입 계획이 없는 기업은 53.3%로 나타남 - AI 도입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높은 초기 비용'(31.7%)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힘. 이어 '투자 대비 효과 불확실성', '경영진의 낮은 관심' 순이었으며, 도입 과정의 걸림돌로는 '전문 인력 부족'(41.2%)이 지적됨
	□ 패션 AI 스타트업 '에스폴리즈AI', 스타일 분석으로 맞춤 쇼핑 제공(2025.10.23) - 실리콘밸리에서 2018년 창업한 패션 특화 멀티모달 AI 스타트업 '에스폴리즈AI'가 고객 맞춤형 쇼핑 정보를 제공함. 홍지원 대표는 쇼핑의 불편함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창업함 - 이 솔루션은 텍스트, 이미지, 스타일을 딥러닝해 사진 몇 장만으로 고객 스타일을 파악함. 쇼핑물의 신규 이미지를 10초 만에 주요 속성 30~40개로 자동 분류함 - 네이버 D2SF 등에서 투자를 유치했으며 W컨셉, 코오롱몰, 한섬 등이 고객사임. 홍 대표는 한국이 잘하는 하드웨어와 K컬처 등 고유 데이터를 활용한 특화 AI 모델의 경쟁력을 강조함
	□ 대상그룹, 자체 AI 플랫폼 '대상 AI' 전사 도입으로 AI 전환 가속(2025.10.23) - 대상그룹이 자체 AI 플랫폼 '대상 AI'를 전사에 도입하며 업무 효율 극대화와 AI 중심 전환(AX)을 본격화함. 이는 일하는 방식 혁신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대전환의 일환임 - '대상 AI'는 웹 검색, 자료 요약, 보고서 작성, 번역 등 LLM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구성됨. 전용 클라우드 환경에서 자료 유출 위험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국어 지원 및 다양한 문서 형식 처리가 가능함 - 대상그룹은 2026년을 AI 기반 업무 전환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특정 업무를 AI가 전체 수행하는 'AI 에이전트' 구축에 착수함. 연구 활동 지원, 영업 보고서 자동화 등 실질적 과제를 우선 추진할 계획임
	□ LGU+ '익시젠', AI 학회 'EMNLP 2025'서 산업 특화 AI 기술 입증(2025.10.23) - LG유플러스는 자체 개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익시젠(IXI-GEN)' 관련 논문이 세계 최고 수준의 자연어처리(NLP) 학회인 'EMNLP 2025'에서 채택됨 - 논문은 소형 언어모델(sLLM)의 효율과 품질을 동시에 높이는 '도메인 특화 학습(DACP)' 기법을 제안함. 이는 산업 데이터를 학습하면서도 범용 언어 능력을 유지하는 새로운 접근법임 - 이 기술을 통해 기업들은 비용과 인프라 부담 없이 산업 맞춤형 AI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음. LG유플러스는 이번 성과가 산업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실용적 AI 연구의 경쟁력을 입증한 것이라 자평함
	□ 나노엔텍, AAI헬스케어 인수로 '커넥티드 헬스케어' 기업 도약(2025.10.23) - 나노엔텍이 AAI헬스케어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며 디지털 원격의료 기반 '커넥티드 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을 계획함. 진단장비 중심에서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 전문기업으로 사업 기반을 확장함 - 나노엔텍은 AAI헬스케어의 병원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존 체외진단기기 공급 확대를 계획함. AAI헬스케어는 나노엔텍 제품 연동으로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 진단 기반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AAI헬스케어는 최근 10만 건 이상의 건강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건강상담' 플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랫폼을 출시함. 향후 AI와 원격의료의 융합된 차세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로 확장할 계획임
	□ 삼성전자·SK하이닉스, 'SEDEX 2025'서 HBM4 실물 공개하며 AI 메모리 주도권 격돌(2025.10.23)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대전(SEDEX 2025)'에서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6세대 제품 HBM4 실물을 나란히 공개함. 양사 모두 JEDEC 표준(8Gbps)을 상회하는 동작속도를 강조함 - 양사 모두 HBM3E 대비 전력 효율 40% 개선을 내세움. 적층 기술에서는 SK하이닉스가 16단으로 12단인 삼성전자를 앞섬. HBM4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플랫폼 '루빈'에 탑재될 전망이다 - SK하이닉스는 HBM3E 선점에 이어 HBM4 경쟁에서도 앞서 시장 리더십 유지를 노림. 삼성전자는 기술 난도가 높은 1c 나노 공정 및 자체 파운드리 공정을 활용해 HBM4에서의 반전을 모색함
	□ TYM, '2025 국제농업박람회' 참가해 AI 자율주행 농기계 선보여(2025.10.23) - 글로벌 농기계 전문기업 TYM이 23일부터 전남 나주에서 열리는 '2025 국제농업박람회'에 참가함.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농업 솔루션과 프리미엄 농기계 라인업을 선보임 - 이번 박람회는 'AI와 함께하는 농업혁신, 생명 키우는 K-농업'을 슬로건으로 25개국 380여 기관이 참여해 미래 농업의 청사진을 제시함. TYM은 총 11종의 주요 기종을 전시함 - TYM은 플래그십 자율주행 트랙터 T130, 밭작업 전용 신제품, 존디어 트랙터, 콤파인 등을 전시함. 자회사 TYMICT는 자율주행 핸들 시뮬레이터를 통해 방문객에게 기술 체험 기회를 제공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대학교	□ 인천대, 국내 대학 최초 AI 급식관리 시스템 도입(2025.10.23) - 인천대가 국내 대학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 급식관리 시스템을 도입함. 학생식당과 기숙사식당에 AI 푸드스캐너를 설치함 - 이 시스템은 식기 반납 시 자동으로 잔반의 양과 종류를 인식 및 측정해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정량적으로 관리함. '잔반제로' 달성 이용자에게는 '썉썉머니' 앱으로 탄소중립 포인트를 적립함 - 인천대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저감과 ESG 보고체계를 마련할 계획임. 12월까지 시범운영 후 결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교내 모든 식당으로 확대 도입을 검토할 예정임
	□ 경북대, 'FIX 2025'서 로봇·AI·모빌리티 등 미래 혁신 기술 선보여(2025.10.23) - 경북대학교가 22일부터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5)'에 단독관을 운영해 대학의 유망 혁신 기술을 선보임 - 이번 박람회는 미래 산업을 한데 모은 지역 대표 기술 전시회로, 4개 행사가 통합 개최됨. 경북대는 '대한민국 ICT융합 엑스포' 부문에 8개 기관이 함께하는 공동관을 꾸림 - 참여 기관들은 차세대 에너지 저장 시스템, 4축보행로봇, AI 기반 화재진압로봇, 무인 수직이착륙기 등 첨단 기술을 선보임. 학생창업기업의 AI 기반 플랫폼도 소개됨
	□ KAIST GCC, 'USA Business Scale-Up Program'으로 로봇 스타트업 실리콘밸리 진출 지원(2025.10.23) - KAIST 글로벌기술사업화센터(GCC)가 중기부 등과 함께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2025 USA Business Scale-Up Program'을 개최함. 이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대학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내 로봇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함 - 세계 최대 로봇 허브 'MassRobotics'와 공동 기획한 이번 행사는 기술 시연, 전문가 멘토링, 산업 네트워킹 등을 제공함. 참가 기업들은 현지 전문가로부터 시장 적합성, 기술 경쟁력 등에 대한 실질적 조언을 얻음 - 참가 스타트업들은 'RoboBusiness 2025' 전시회 'KAIST KOREAN PAVILION'에 공동 부스로 참여함. 도구공간, 나르마, 서울다이나믹스 등 6개 기업이 AI 자율주행 로봇, 드론 등 첨단 기술을 선보여 주목받음
	☐ 동의과학대, 물리치료사 대상 'AI/DX 기반 어깨 치료' 재직자 교육 실시(2025.10.23) - 동의과학대학교 RISE 사업단이 지난달 20일 부산지역 현직 물리치료사 16명을 대상으로 'AI/DX 기반 어깨 평가와 치료 전략 전문가 과정'을 운영함 - 이번 교육은 물리치료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AI·DX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치료 전략을 임상 현장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됨. 지역 의료기관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함 - 교육은 어깨복합체의 해부·생체역학적 이해, 기능적 움직임 평가(FMS), 근전도 분석, 빅데이터 기반 운동기능 해석 등 최신 기법을 포함함. 참여자들은 현장 치료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함
해외	- (해당 없음)
기타	☐ AI 기술, 핵융합 발전 난제 '플라스마' 통제 지원(2025.10.23) - 핵융합 발전은 탄소 배출이나 핵 폐기물 없이 무한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 '꿈의 에너지'로 불림. 특히 AI와 데이터센터 운용에 막대한 전기가 필요해지면서 미래 신기술로 주목받음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기타	- 핵융합 발전의 최대 난제는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된 초고온 상태의 '플라스마'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임. 과거에는 인간의 정교한 제어가 어려웠으나, 최근 AI 기술이 접목되며 변수 관리가 가능해짐 - AI 발 전력 수요 급증으로 빅테크들도 핵융합 기술 개발과 투자에 나섬. 구글 딥마인드는 플라스마 제어를 지원하고, MS는 전력 구매 계약을 맺었으며, 샘 올트먼 오픈AI CEO도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함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